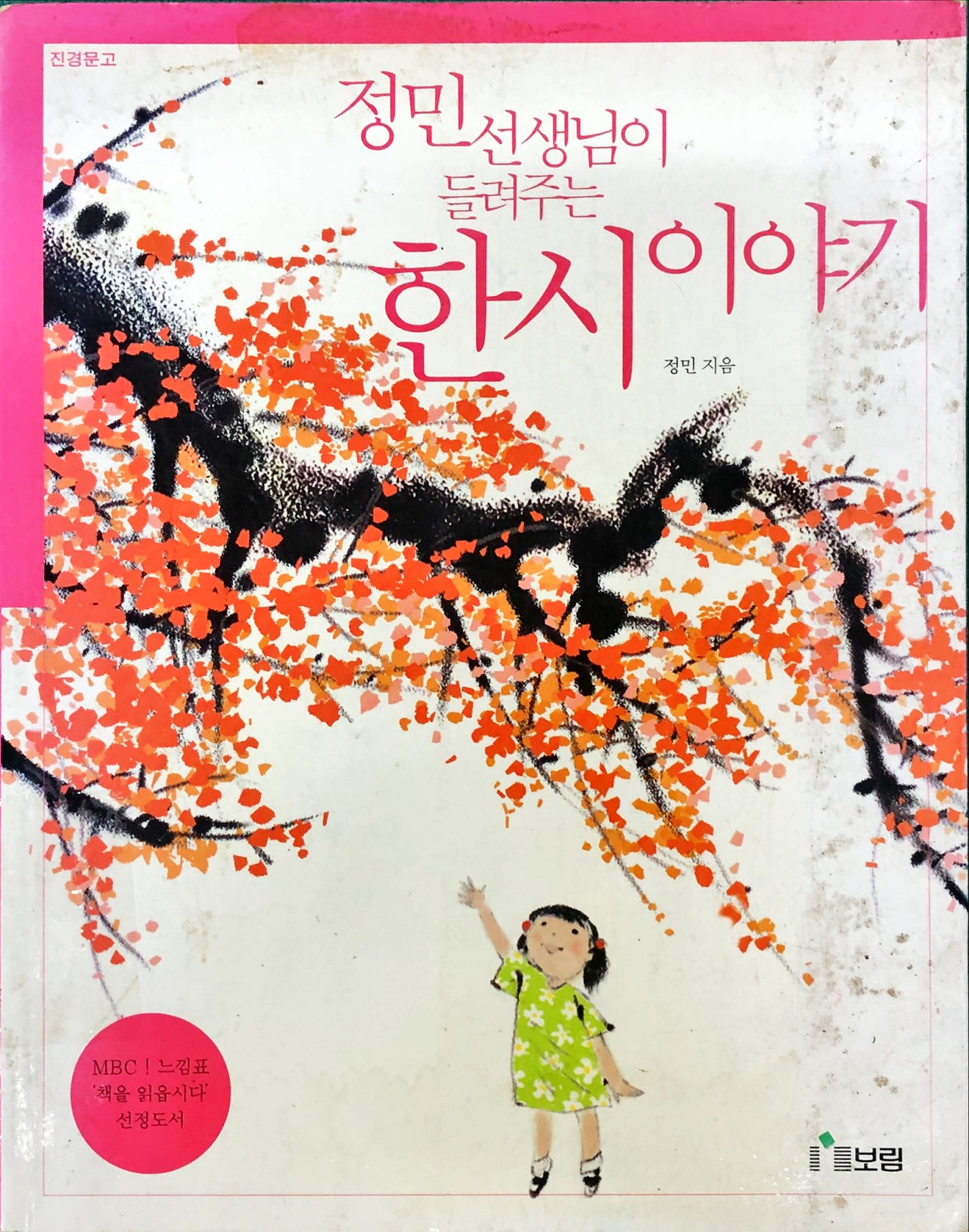
진경문고

#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정민 지음



MBC !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
선정도서

보림

정민선생님이
들려주는

# 한시이야기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 정민 2002, 2003

**1판 1쇄 발행** 2002년 7월 2일 **2판 1쇄 발행** 2003년 2월 8일 **지은이** 정민 **펴낸이** 권종택
**표지그림** 김동성 **교정** 이명애 **디자인** 디자인 이즈 **펴낸곳** (주)보림출판사 **출판등록** 제8-129
**주소** 121-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31-5 용성빌딩 5층 **전화** 02) 3141-2222
**전송** 02) 3141-8474 **독자주문전화** 02) 3141-7887 **홈페이지** www.borimbook.co.kr
**값** 9,000원 **ISBN** 89-433-0501-X 73810

* 이 책의 인세와 판매수익금 전액은 '기적의 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쓰입니다.

#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정민 지음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IỆP HÀ NỘI
TRUNG TÂM THÔNG TIN THƯ VIỆN
07 07
04586

보림

**일러두기**

한문으로 된 글, 그림, 책 제목은 지은이가 우리말로 풀어 썼습니다.

# 차례


9_ 벼리에게 시에는 이상한 힘이 있단다

15_ 첫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

25_ 두 번째 이야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33_ 세 번째 이야기 진짜 시와 가짜 시

39_ 네 번째 이야기 다 보여 주지 않는다

49_ 다섯 번째 이야기 연꽃에서 찾는 여러 가지 의미

59_ 여섯 번째 이야기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

67_ 일곱 번째 이야기 사물이 가르쳐 주는 것

75_ 여덟 번째 이야기 새롭게 바라보기

83_ 아홉 번째 이야기 의미가 담긴 말

91_ 열 번째 이야기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99_ 열한 번째 이야기 시는 그 사람과 같다

107_ 열두 번째 이야기 치마 위에 쓴 시

115_ 열세 번째 이야기 계절이 바뀌는 소리

125_ 열네 번째 이야기 자연이 주는 선물

133_ 열다섯 번째 이야기 울림이 있는 말

141_ 열여섯 번째 이야기 한 글자의 스승

151_ 열일곱 번째 이야기 간결한 것이 좋다

159_ 열여덟 번째 이야기 물총새가 지은 시

167_ 열아홉 번째 이야기 아비 그리울 때 보아라

177_ 다시 벼리에게 도로 네 눈을 감아라

한시 원문 183

183_ 무덤에 제사 지내는 노래

184_ 산속

185_ 산장의 밤비

186_ 혼자 앉아

187_ 연꽃 구경

188_ 빗속의 연꽃

189_ 연꽃

190_ 도산 달밤에 핀 매화

191_ 매화 가지 끝의 밝은 달

192_ 매화

194_ 고개 위의 꽃

195_ 사물을 바라보며

196_ 무궁화
197_ 대동강 노래
198_ 가을밤
199_ 완성된 시가 아니므로 제목이 없음
200_ 괴로이 읊다
201_ 제목을 알 수 없음
202_ 패랭이꽃
203_ 시골집의 눈 오는 밤
204_ 매조도에 쓴 시
205_ 아가위꽃
206_ 봄비
207_ 산 절에서 한밤중에
208_ 눈앞의 풍경
209_ 금강산
210_ 송도 감로사에서
211_ 달을 기다리며
212_ 산중문답
213_ 제목이 전하지 않음
214_ 봄날
215_ 제목이 전하지 않음
216_ 제목이 전하지 않음
217_ 압록강 가는 길에
218_ 김양송의 그림책에 써 주다
219_ 사근역에서
220_ 물총새
221_ 또한 통쾌하지 아니한가
222_ 밤에 누워 시를 짓다가
223_ 낮잠
224_ 바느질
225_ 아침 문안
226_ 마을 아낙네

**책 속의 인물들** 227
**찾아보기** 247
**한시와 그림 목록** 252

## 정민(鄭珉)

1960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때 처음 한시의 매력에 빠져 교과서와 참고서에 나오는 한시를 다 외웠다. 한양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있다. 고리타분해 보이는 한문학이 우리 시대와 가까이서 호흡할 수 있는 방도를 늘 생각해 왔다. 한문은 이미 쓰임새를 잃었지만, 그 안에 담긴 콘텐츠는 쓸모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다. 한시의 아름다움을 평이하면서도 섬세하게 풀어낸 《한시미학산책》을 비롯하여, 연암 박지원의 산문예술을 살핀 《비슷한 것은 가짜다》, 이덕무의 맑은 말을 정갈하게 해설한 《한서 이불과 논어 병풍》 등의 책을 펴냈다. 옛 글 속 선인들의 체취를 담은 《책 읽는 소리》, 한시 속에 깊이 스민 신선 세계의 환타지를 분석한 《초월의 상상》 외에 전각과 와당의 아름다움을 담긴 뜻과 함께 도판으로 소개한 《돌 위에 새긴 생각》, 《와당의 표정》 등의 저서가 있다.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와 청소년이 흥미롭게 한시를 읽으면서 사물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함께 길러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중학생인 딸 마루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벼리를 생각하며 이 책을 썼다.

## 시에는 정말 이상한 힘이 있단다.

시로 쓰면 이상한 울림도 생겨나고, 마음속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잖니?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시를 썼을까?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한자로 글을 짓고 썼단다. 시도 한자로 지었지. 너는 아직 한자를 많이 알지 못하니까 한시는 네게는 조금 어려울 거야.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단다.

- 책 속에서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IỆP
TRUNG TÂM THÔNG TIN THƯ
Mã sách: 0707[illegible]586

73810
9 788943 305017
ISBN 89-433-0501-X
값 9,000원